

순라길 도보투어, 역사유적부터 ‘힙’한 카페까지

종로구는 서울의 여러 자치구 중에서 다양한 관광자원을 가져 많은 국내외 관광객들이 찾던 지역이다. 조선의 도읍 한양을 대표하는 궁궐과 종묘 등의 역사유적과 함께 인왕산 등 도심 속 자연탐방 명소도 갖추고 있다. 서울관광재단(대표이사 길기연)이 연말을 맞아 순라군 해설 프로그램부터 서순라길, 석파정 등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고 있는 종로구의 숨은 명소들을 추천했다.

조선 경찰 순라군과 함께 해설 투어 서순라길 걸으면 여유로움 만끽 석파정 별채 앉아 풍광 한눈에 감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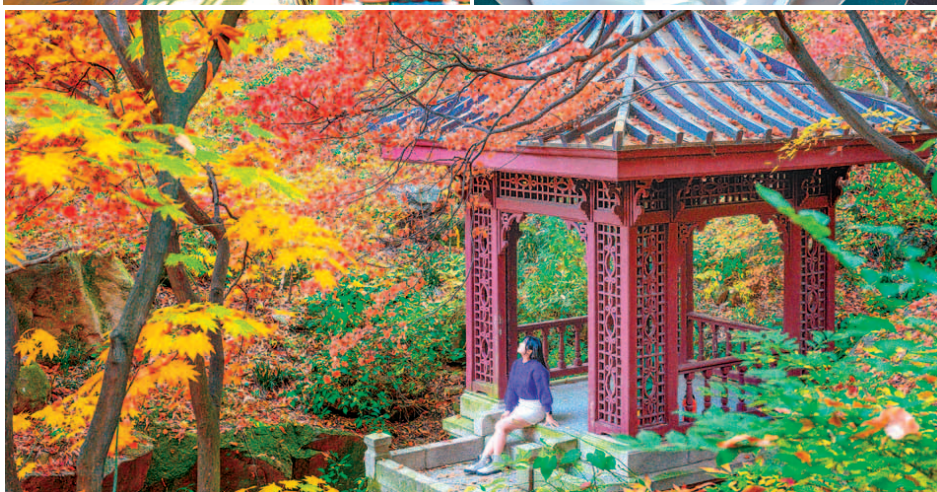
●순라군과 함께 떠나는 시간여행

순라군은 조선시대 야간에 화재와 도둑을 막기 위해 한양을 돌며 순찰하던 경찰이다. 종로구는 11월부터 ‘순라길, 순라군 해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순라군 복장의 해설사와 함께 창덕궁과 종묘로 이어진 사잇길을 걷는 프로그램이다.

도보투어는 창덕궁의 정문인 돈화문 앞에서 시작한다. 돈화문 앞길은 임금이 백성을 살피던 ‘어도’였고 좌우에 시전이 들어섰다. 북촌에 양반이, 서촌에는 중인들이 많이 살았는데, 특히 돈화문 앞쪽에는 궁이나 종묘에서 행사가 있을 때 음악을 연주하던 음악가들이 많이 살았다. 그 명맥이 이어져 지금도 국악학원, 악기사, 한복집 등이 모여 있다. 종로3가역 앞 금은방 거리를 통해 종묘로 향해 서쪽으로 이어지는 담장을 따라 난 서순라길을 걸어 대각사로 향하는 여정을 운영하고 있다.

●힙한 카페와 술집, 입소문 명소 서순라길

종묘 서쪽 담장을 따라 걷는 서순라길은 요즘 ‘힙’한 공간을 찾는 사람들 사이에 새롭게 떠오르는 명소다. 지하철 종로3가역 11번 출구로 나와 서순라길 쪽



종로구는 최근 과거와 현재를 넘나드는 명소들을 거니는 도심 도보투어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위 사진부터 시계방향으로)순라군 복장의 해설사와 함께 돈화문 앞길을 걷는 순라군 해설사 프로그램, 서순라길의 입소문 명소 중 전통과 현대를 접목한 메뉴로 주목받은 카페 ‘사사’의 디지털, 전통 한옥에 일본식 주택의 특징이 더해진 백인제 가족의 사랑채, 흥선대원군의 별장인 석파정의 정자.

사진제공 | 서울관광재단

으로 걷다 보면 범상치 않은 내공의 분위기를 풍기는 잔술집들이 나타난다. 주변 건물들이 종묘 담장을 넘보지 못하도록 높이가 2층으로 고도를 제한해 아늑하고 여유로운 분위기가 매력이다. 아직까지 유명세가 덜해 서울의 다른 명소에

비해 평일에는 비교적 한가롭다. 한옥 주점인 ‘술라’와 카페 사사는 요즘 서순라길에서 뜨는 ‘핫플’이다. 종묘 담벼락을 마주보는 2층 창가 자리가 인기인 술라에서는 주로 국내 수제 맥주와 칵테일 등을 판다. 카페 사사는 전통과

현대를 재해석한 디저트와 음료를 내놓고 있다. 눈알볼 막걸리와 구운 가래떡에 조청과 인절미 가루를 얹어 소반에 담은 한상차림 메뉴가 대표적이다.

●흥선대원군 마음 사로잡은 ‘뽕 맛집’

석파정은 조선 후기 철종 때 영의정을 지낸 김홍근의 별장이었다. 고종 즉위 후 이곳의 풍광에 빠진 흥선대원군이 자신의 별장으로 삼으면서 그의 호인 석파(石坡)로 이름을 붙였다. 석파정을 관람하기 위해서는 서울미술관 통합 입장권을 구매해야 한다. 전시 관람을 한 후 3층을 통해 야외로 나가면 석파정이 나타난다.

본래 8채였던 석파정은 현재 안채, 사랑채, 별채, 석파정만 남아 있다. 가장 높은 곳인 별채에 걸터앉으면 북악산과 인왕산 사이의 계곡에 안긴 듯 자리한 풍경이 한눈에 들어온다. 별채에서 내려와 숲길을 따라가면 계곡 속 정자 석파정이 나타난다.

●근대사 파란 담길 백인제 가족

종로구에는 북촌 일대 전통 고택부터 서촌과 익선동의 근대 한옥까지 다양한 한옥이 있다. 백인제 가족과 고희동미술관은 일제강점기와 근대화 과정에서 당시의 건축상을 반영하여 전통 한옥과 일본 가옥이 절충된 구조가 인상적인 곳이다.

북촌의 백인제 가족은 전통 고택과는 다른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본래 한옥은 남자가 생활하는 사랑채와 여자가 생활하는 안채가 분리되어 있는데, 백인제 가족은 내부 복도를 통해 연결되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하였다.

원서동 고희동 미술관은 안채와 사랑채로 나뉘어 있는데 백인제 가족과 마찬가지로 복도를 두어 오가기 편하게 만들었다. 사랑방 옆에 그림을 그리는 화실을 따로 둔 것이 눈길을 끈다. 현재는 ‘ㄷ’자형 사랑채가 안채를 감싸고 있는 형태로 ‘ㄱ’자형 구조를 하고 있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전철타고 오세요” 엘리시안강촌 스키장 오늘 오픈

초급 슬로프 3면 운영…“방역 철저”

수도권에서 전철타고 가는 스키장으로 유명한 엘리시안강촌이 3일부터 21/22 겨울 시즌을 시작한다.

춘천 엘리시안강촌 스키장은 3일 개장해 초급 슬로프를 3면을 운영한다. 첫날 운영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고 4일

부터 오전 9시에 시작한다.

엘리시안강촌 스키장은 경춘선 전철을 이용하는 탁월한 접근성을 자랑한다. 서울서 열차를 타고 1시간이면 경춘선 엘리시안강촌역(백양리역)에 정차한다. 엘리시안강촌은 지난 시즌부터 초보 스키어들을 위한 무빙워크 설치와 슬로프 공사를 대대적으로 진행했다. 이번 시즌에도 초보자들



을 위해 추가 공사를 진행해 완료했다. 스키장을 처음 이용하는 비기너 스키어에 특화된 강습프로그램도 마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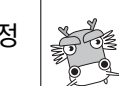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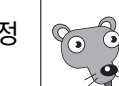
어린이 및 가족 고객을 위한 ‘스노우힐&

편파크’도 시즌에 맞춰 개장한다. ‘스노우힐&편파크’는 엘리시안강촌 스키장의 테마 놀이시설로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있는 눈썰매장을 비롯해 빠른 속도로 내려오면서 속도감을 맛 볼 수 있는 튜브 썰매 등을 갖추고 있다.

엘리시안강촌 스키장 관계자는 “철저한 방역을 통해 누구나 안심하고 방문하여 즐겁게 스키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이번 동계시즌에 보다 안전한 스키장으로 고객들을 맞겠다”고 밝혔다. 김재범 기자

박경호의 운수 좋은 날

12월 3일 (금) 음력: 10월 29일 문의: (02) 812-1201, 도원학당

 쥐	행운색: 흰색 길방: 서	 소	행운색: 적색 길방: 남	 호랑이	행운색: 검정 길방: 북	 토끼	행운색: 검정 길방: 북	 용	행운색: 적색 길방: 남	 뱀	행운색: 청색 길방: 동
문서에 따르는 변화에서 명예가 따르나 과욕을 부리면 도리어 구설이 뒤따르는 경향이 있다. 명예, 문서적인 측면에 신중을 기하여 결여된 부분이 없는가를 확인하고 행동에 옮겨야 한다. 처음은 불안하다. 노력을 하여라. 이룬다.	되도록 무리를 하지 말고 쉬운 길을 골라서 식견 있는 사람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 합부로 나아가지 말고 자기 몸을 돌아보고 인격을 연마하며 위험한 때가 지나갈 기미가 있다. 운이 막혔으니 큰 것은 바라지 말라.	사람의 턱과 같은 운기의 날이다. 사람은 턱을 움직이면서 음식물을 씹어 먹고 육신을 기른다. 이처럼 턱은 만물을 기르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병이나 화 또는 입을 통해 들어오고 나간다. 구설수나 과식으로 인한 소화불량을 주의하라.	무슨 일이나 엇갈리고 배반되어 잘 들어맞지가 않는다. 주위의 모든 사람이 차가운 시선을 보내고 팔방이 꽉 막힌 상태이다. 당장은 힘들어도 차츰 나아지는 운세이나 자포자기에 빠져 협력자에게 배반당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	평화로운 생활을 하던 사람이 안이한 생활에 젖어 물질적으로 파탄이 오거나 정신적으로 퇴폐적인 생활을 하게 될 때이다. 하지만 부패와 혼란의 시기는 동시에 혁신, 신생의 시대라 할 수 있다. 이때를 삼기일전의 기회로 삼으라.	의욕이 충만한 가운데 자신의 일이나 문제 등이 현실로 돌입되는 시기이니 현 상황에서 확장이나 변화를 시도하기 위하여 고강한 행동이 따라야 하며 너무 주위를 의식할 필요는 없다. 용기를 가져라. 최후까지 노력하면 달성된다.						
 말	행운색: 청색 길방: 동	 양	행운색: 적색 길방: 남	 원숭이	행운색: 노랑 길방: 중앙	 닭	행운색: 검정 길방: 북	 개	행운색: 적색 길방: 남	 돼지	행운색: 흰색 길방: 서
오늘의 마음: 구름, 자유 추구. 운세: 문명이 과도하게 진보하면 퇴폐의 미를 좋아하게 되어 마침내 소박한 생명력을 잃고 만다. 개인에게 있어서는 외면만을 치장하고 내면적인 깊이를 잃고 만다. 오늘은 땀날로 마음이 급해지는 날이다.	오늘의 마음: 여우비, 겨우 해결. 운세: 의욕이 너무 앞서거나 물질적인 면을 강하게 추구하기보다는 현재의 상태에서 안정을 찾도록 하라. 한편 변화의 과정에 있어서 독자적인 행동보다는 인간적 유대관계에 마음을 쓰는 것이 유리하다.	어떤 일에서 다른 일로 바뀌어지는 운기의 날이다. 개혁을 급격히 행하기는 어려우며 서두르면 실패를 초래할 수도 있다. 신념을 가지고 끝까지 계속함으로써 좋은 결과가 얻어질 것이다. 거래에서 큰 건수가 들어온다. 오늘은 대화의 운이다.	창고에 곡물이 산과 같이 쌓여 있는 운기이다. 대망을 품은 자는 먼저 힘을 쌓아두지 않으면 안 된다. 위험이나 장애도 당당히 극복해 나갈 수 있다. 비교적 안정된 때이므로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의 계획을 세우고 착수하라.	뜻을 달고 배가 물위를 가는 기운으로서 밖을 향해 큰 기운을 발산하고 대사업을 이룩해 가는 시기이다. 이제까지의 불운을 만회하고 각정이나 번민에서 해방되는 때이다. 하지만 너무 태만하다보면 모처럼의 행운도 놓치게 된다.	자칫 인간관계에서의 트러블로 인해 곤란한 지경에 놓이게 되며 그로인한 심리적인 갈등과 마찰로 의욕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한동안의 안정으로 다소 여유를 얻으며 생각지 않은 만남이 연출된다. 지출이 많을 때이다. 자제하라.						

롯데월드, 중소 콘텐츠 기업과 ‘K-콘텐츠 IP’ 육성



롯데월드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21 IP 라이선싱 빌드업’을 통해 중소 콘텐츠기업과의 다양한 협업을 진행한

다. ‘IP 라이선싱 빌드업’은 전담 코칭 및 전문가 멘토링을 제공하고 테마파크와의 협업을 통해 중소 콘텐츠기업 IP의 성장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다. 먼저, 우소와 함께한 ‘IP X SCREEN’에서는 ESG경영 슬로건인 ‘A BETTER WORLD’를 주제로 대표 캐릭터 로티, 로리와 우소의 캐릭터인 고양이 따와 강아지 부가 함께 등장하는 홍보영상(사진)을 제작했다. 골드프레임과 손잡고 진행한 ‘IP X GOODS’에서는 롯데월드 캐릭터들과 주먹밥 강아지 캐릭터 밥이본이를 활용해 벽걸이와 탁상용 달력을 제작했다.

곤지암리조트 AI·로봇 활용 비대면 서비스 강화

경기도 광주 곤지암리조트가 AI(인공지능)와 로봇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서비스를 잇따라 선보이고 있다. 곤지암리조트는 최근 LG전자와 제휴한 ‘AI 컨시어지 솔루션’ 서비스를 도입했다. 회전형 디스플레이 기술이 적용된 AI 키오스크가 로비 등에서 24시간 리조트 주요 시설 및 식음업장의 위치와 주요 메뉴 등 이용 문의에 서비스 컨시어지로서 응대한다. 이와 함께 LG전자의 인공지능 로봇, 자율주행, 5G, 원격제어 등 다양한 혁신 기술이 적용된 ‘AI 시설관리 솔루션’도 도입했다. LG전자가 독자개발한 지능형 관계 시스템과 자율주행 기능이 탑재된 인공지능 로봇이 리조트 실내외를 이동하면서 리조트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실시간 모니터링한다.



아일랜드 리솜, 투명동 ‘일루글루’ 론칭

호반호텔&리조트가 운영하는 안면도 아일랜드 리솜은 최근 투명동 ‘일루글루’(사진) 상품을 론칭했다. 비치테라스 ‘아일랜드 57’에 마련한 일루글루에서는 ‘한국의 코타키나발루’로 불리는 꽃지 해변의 노을을 따뜻하고 아늑한 공간에서 감상할 수 있다. 내부에 난방 기구와 테이블 및 의자, 무드라프 등 편의시설을 갖춰 글램핑의 즐거움도 느낄 수 있다. 객실과 일투글루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패키지도 있다. 객실 1박과 일투글루 이용권, 섀넌스파(2인)로 구성했다.

오늘의 날씨				3일(금)			
서울	60/0	인천	60/0	춘천	60/0	강릉	20/0
	0 4		1 4		-2 5		3 8
대전	20/10	전주	60/10	광주	30/20	대구	30/0
	2 7		4 7		4 9		2 8
부산	0/0	창원	0/0	제주	60/60	지역	강수 확률 (오전/오후)
	6 12		4 11		8 14		최저 최고기온 C